

삼전·SK하닉 사상 최대 실적… 주가는 ‘실적 이후’가 관건

3분기 합산 영업이익 180조 전망
4분기·내년, 실적 피크아웃 우려
외국인 수급 회복 여부 중요해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수준의 3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지만 시장의 관심은 이미 실적 이후로 이동하고 있다. 3분기 실적 눈높이는 높아진 반면 4분기와 내년 이익 전망은 잇따라 낮아지고 있고,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 리밸런싱과 자사주 매입 종료 등 수급 부담도 겹치고 있어서다. 역대급 실적이 주가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실적 자체보다 향후 이익 전망과 수급 변화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 106조·SK하이닉스 77조… ‘반도체 투톱’ 사상 최대 실적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29% 하락한 26만 8500원에, SK하이닉스는 2.82% 떨어진 172만 3000원에 마감했다.

8일 예정된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주목되고 있다. 6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 주가의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운용자산(AUM) 약 140억달러(약 18조 7600억원) 규모의 반도체 ETF 7종의 리밸런싱 과정에서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앞두고 있지만 향후 이익 전망과 수급 부담에 주가 기대감은 엇갈리고 있다.

ETF들은 8일 리밸런싱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편입 비중이 종목별 상한에 가까운 것으로 예상됐다.

더불어 삼성전자에서 유출된 자금이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이수페타시스, 원익IPS, 한미반도체 등으로 유입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SK하이닉스에는 리밸런싱에 따른 자금 유입이, 삼성전자에게는 자금 유출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도 유사한 투자 흐름을 보였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7월 이후 연금의 순매도 규모가 가장 큰 종목은 SK스퀘어로 1조 3531억원이었으며, 삼성전자도 7937억원 순매도됐다. 반면,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1조 5988억원 순매수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자체는 사상 최대 수준이 예상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의 시장예상치(컨센서스)는 약 106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77조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면서 양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18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3분기 동안 이뤄진 급격한 원화 강세로 인해 실적 측면의 비우호적 환경이 조성됐지만, 강건한 판매 정책이 기반해 메모리 평가가 산업 평균을 재차 능가하며 견조한 실적 개선이 가능했다”며 “최근 메모리 사이클 개선 속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향후 1~2개월간 메모리 업체들에 대한 2027년 실적 추정치 상향과 함께 ‘성

장·저평가·주주환원 매력’이 동시에 발생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4분기부터 낮아지는 눈높이…주가 상승동력 ‘시험대’

다만 시장의 시선은 이미 3분기 이후로 옮겨가고 있다. 역대급 실적이 예상되는 것과 달리 4분기와 내년 실적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는 낮아지는 흐름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16조 6065억원으로, 한 달 전 123조 1176억원보다 5.29% 하락했다. SK하이닉스 역시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달 전 89조 493억원에서 88조 1354억원으로 1.03% 낮아졌다. 양사 모두 내년 1분기와 2분기 전망치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환율 하락과 메모리 가격 상승을 둔화 가능성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3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더라도 향후 이익 증가 속도가 둔화될 경우 주가의 추가 상승 동력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주가의 핵심인 DRAM과 NAND의 평가는 오히려 예상보다 소폭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현재 저평가돼 있다”며 “삼성전자의 2027년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은 4.2배에 불과하며, 이익 창출력은 글로벌 최상위권”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원·달러 환율 가정을 기존 1450원에서 1400원으로 3.4% 하향하고, 모바일 경험·네트워크(MX·NW) 사업부의 적자 폭을 확대 반영하면서 3분기 영업이익의 추

계치는 기존 111조원에서 106조원으로 조정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종료도 수급 변수다. 양사는 지난 8월부터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며 증시 조정 과정에서 출회된 매도 물량을 상당 부분 받아냈다. 자사주 매입이 종료되면 그동안 주가 하방을 지지했던 수급 주체가 사라질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본격화한 지난 8월 20일부터 이날까지 개인과 외국인은 두 종목을 약 21조원, 25조 8000억원씩 순매도했다.

결국 3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외국인 수급이 돌아설지가 관건이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연초 52.33%에서 이날 46.37%로, SK하이닉스는 53.83%에서 49.71%로 각각 낮아졌다.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웃돌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신뢰가 이어진다면 외국인 매수세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사상 최대 실적이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상황에서 4분기 이후 이익 전망까지 낮아진다면 실적 발표가 차익실현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헤더 오 골드만삭스 연구원은 “삼성전자에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다시 유입될지, 강력한 실적 모멘텀과 낙관적 전망치를 유지할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거래소, 시총 미달 상장폐지 절차 ‘유예’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
상폐 결정된 8개사는 거래정지

법원이 시가총액 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상장폐지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 한국거래소가 관련 상장폐지 절차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관리종목 지정 이후 진행되는 상장폐지 절차는 당분간 진행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는 7일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소송 인용에 따른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은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거래소는 해당 법원 결정과 관련해 향후 가처분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에 부당하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등 절차참여권과 강화된 기준의 적용 시기를 앞당긴 부분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관리종목 지정 결정의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하고,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정지에 대해서만 인용했다.

거래소는 법원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한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유사한 분쟁이 확산하면서 기업과 투자자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지난 2일부터 관리종목 지정 이후의 상장폐지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향후에도 시가총액 미달 기업에 대한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하고 시장에서 거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정지 중인 8개사에 대해서는 거래정지를 계속 유지한다. 정리매매 전 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코스닥의 신라에스지·골드앤에스·케이엠제약·핀텔과 코스피의 주연테크 등 5개사다. 정리매매 진행 중 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코스닥의 세진티에스·에이에프더블류와 코스피의 S HD 등 3개사다.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제도는 올해 7월부터 기준이 강화됐다. 코스피는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 코스닥은 200억원 미만으로 기준이 높아졌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으로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구조다. 기존의 연속 10거래일·누적 30거래일보다 퇴출 요건이 강화됐다.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별도 퇴출 요건도 도입됐다.

/신하은 기자

9월 새내기주 날았다… 연말 IPO 시장 들쭉

8월 4곳 공모가 밑돌 때 9월 6곳 상승
와이즈플래닛컴퍼니 주가 285.8%↑
공모가·우호적 증시 환경 등 영향

지난 달 상장한 ‘새내기주’들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위축됐던 공모주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월 상장사 중 와이즈플래닛컴퍼니(285.8%)와 네오사피엔스(243%)는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3배를 넘겼다. 반면 8월 상장주 6곳의 월말 수익률은 평균 -23.6%였다. 청약 흥행과는 무관했다. 8월 니어스랩은 수요예측 경쟁률 743.49대 1에도 첫날 30.5% 하락했지만, 9월 스카이랩스는 일반청약 경쟁률이 2.85대 1에 그쳤는데도 135% 뛰었다.

공모가와 유통물량에서는 차이가 보였다. 올해 희망밴드 하단보다 낮게 공모가를 정한 3곳은 모두 9월에 상장했다. 상장일 유통가능 물량도 8월은 6곳 중 5곳이 30%를 넘었지만, 9월은 5곳이 21~27%대에 그쳤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장 분위기를 더 큰 변수로 꼽는다. 8월 첫 상장일 전날부터 마지막 상장일까지 코스닥 지수는 3.6% 내렸지만, 9월 같은 기간에는 8.3% 올랐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8월과 9월 상장 기업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9월 증시 분위기가 좋아진 영향”이라고 말했다. 연태우 IR큐더스 매니저도 “위축됐던 투자심리가 중복상장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회복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관사 효과로 보기도 어렵다. 한국투

자증권이 대표주관한 딜리셔스는 8월 첫날 26.6% 하락했지만, 9월 같은 증권사가 맡은 스카이랩스와 글로벌테크놀로지는 각각 135%, 82.2% 올랐다. 삼성증권이 맡은 8월에 상장시킨 니어스랩(-30.5%)과 인제니아테라퓨틱스(+49.9%)도 성적이 정반대였다.

9월 상장 기업들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코스닥 상장을 앞둔 AI 풀스택 기업 엘리스그룹의 흥행 여부에 쏠리고 있다. 엘리스그룹은 공모가를 9만 500원으로 확정했다. 공모가 기준 공모 금액은 2011억원, 상장 시가총액은 1조 544억원이다. 공모가가 상단에서 결정되면서 지난해 10월 리브스메드 이후 약 1년 만에 등장한 조 단위 코스닥 ‘IPO 대어’에 등극했다.

이 밖에도 멜론, 디티에스 등 17곳이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업 공개 절차를 밟고 있다. 예비심사를 통과한 뒤 증권신고서 제출 등을 준비하는 기업까지 포함하면 연내 IPO에 나설 기업은 20곳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 연구원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전까지 막혀 있던 물량이 올해 말과 내년 상반기에 쏟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9월 상장 3곳을 주관한 대신증권 관계자는 “신성장 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트랙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 코스피 빅딜도 포함돼 하반기 공모실적 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13일 사전수요예측 콘서트 투자자 제도 시행을 앞두고 4분기 초·중반 공모 일정이 몰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아영 기자 aykim@

메리츠증권, 리플과 디지털자산 파트너십

토큰화·수탁 인프라 검토

메리츠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금융 인프라 기업 리플(Ripple)과 국내 시장 디지털 자산 도입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메리츠증권 장원재 대표이사과 리플 모니카 롱(Monica Long) 사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리플이 글로벌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토큰화 인프라와 디지털 자산 수탁 솔루션 ‘리플 커스터디(Ripple Custody)’ 등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관련 규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내 자본시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메리츠증권은 증권업 업무와 현행 규제가



(왼쪽부터) 리플 모니카 롱 사장과 메리츠증권 장원재 대표이사가 1일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메리츠증권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준비를 진행하고, 디지털 자산 제도 정비에 맞춰 협력 분야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